

LG화학, 올해의 2차전지 기업 수상

F&S, 일본기업 제치고 선정 ... 리더십 · 혁신 · 품질 최고기업 평가

LG화학이 올해의 2차전지 기업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.

LG화학은 세계적 권위의 시장조사 및 컨설팅기관 Frost & Sullivan으로부터 <올해의 2차전지 기업상>을 받았으며, 시상식은 8월20일 오후 싱가포르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렸다.

2차전지 기업상은 2009년 처음 제정됐으며 리더십, 혁신, 품질 등 각 분야에서 최고의 2차전지 기업에게 수여하는 것이라고 LG화학은 설명했다.

LG화학은 국내 최초로 노트북과 휴대폰용 리튬이온 2차전지(LiB)를 개발해 1998년부터 본격 양산하기 시작해 휴렛팩커드(HP)와 델(Dell), 노키아(Nokia) 등 세계 유수의 컴퓨터 · 휴대폰 제조기업에게 공급하고 있다.

또 전기자동차(EV)용 리튬이온 2차전지는 현대 · 기아자동차, GM 등에 공급하는 등 각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.

김반석 LG화학 부회장은 “기술력에서 10년 이상 앞서가는 일본의 경쟁기업들을 제치고 선정됐다”고 말했다.
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8/21>